

쇼쿠 대사 좌상

가이산도(開山堂) 안에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명상하는 자세의 목제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크게 부푼 정수리 부분은 넉넉한 가사로 감싼 가는 몸체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각상의 손은 현재 없지만 팔의 배치를 통해 합장한 모습이거나 보시를 받는 바리때를 들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개조의 당당한 모습이라기보다 기도를 드리는 평범한 승려 같은 겸허한 표정과도 일치합니다.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 양식과 구성은 11 세기 초엽의 작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교지 절의 여섯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센가쿠인(仙岳院)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